

생태학적 공간 디자인에 있어 한국 전통의 응용 연구 - 창과 문의 활용을 중심으로

A Study of Application of Korean Tradition in Ecological Space Design

박규현, 김민정

대구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 전공

Park Kyu Hyeun, Kim Min Jung

Dept. of Industrial Design, Tsegu Univ

Dept. of Industrial Design, Tsegu Univ

●Keyword: Ecological Space Design, Flow of space, Ventilation, Lighting

1. 연구 배경 및 목적

생태학적 공간 디자인은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출발점으로 자연을 정복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그것은 하나의 인공물을 일종의 소(小)생태계로 인식하여 환경의 파괴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자연 생태계의 근원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현재 인간이 가진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는 환경 보존주의적 경향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태적 경향은 공간디자인에 있어서 자연 채광이나 환기와 공조 등과 같은 물리적 관점에서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하려는 경향, 자연경관과 실내·외 공간의 유기적 연계를 피하려는 경향, 자연 요소의 직·간접적인 도입, 생태학적 소재나 재료의 사용, 또는 그러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려는 경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전통 창과 문은 생태학적 공간에 있어 자연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가장 일차적인 매개체로서 위 경향들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한국 전통의 창과 문을 연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근대 서양 건축 이론과 과학사상의 환경과피, 인간소의 등의 문제점을, 다른 한편으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이루어진 문화의 획일성과 무질서, 문화 전통의 망각 등을 동시에 반영하는 한국 공간 디자인의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2. 창과 문의 의미

건축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이다. 건축물을 만드는 이유는 빈 공간을 만들어 유용하게 쓰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바닥과 벽, 지붕을 만든다. 그렇게 만든 공간을 쓰기 위해서는 문과 창을 내야 한다.

창과 문이 가진 의미는 다음의 3가지에 있다고 본다.

첫 번째, 사람이 실내·외를 자유롭게 이동(移動)하는 역할,

두 번째, 환기를 통한 실내 온·습도의 조절,

세 번째 인간 생활에 있어 개체간의 Communication의 연결 및 단절 역할이 그것이다.

창과 문은 고정된 건축물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요소이다.

창과 문은 공간을 여는 열쇠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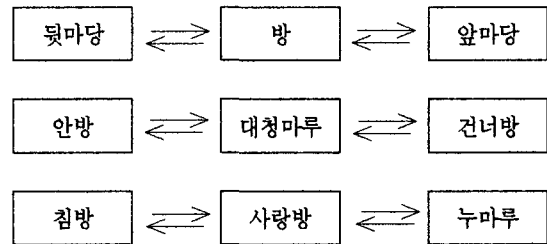
3. 한국 전통 창과 문의 생태학적 특징

3-1. 구조적 특징

우리나라는 사계절 기후의 변화는 심하지만 열대나 한 대 지방에 비해 온순하므로 자연을 적대시 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을 최대한 수용한다.

한국의 전통 주택은 꼭 필요한 곳은 벽으로 막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둥과 기둥 사이를 문이나 창으로 막는다. 대청 마루와 방 사이에는 분합문을, 방 앞·뒷면에는 마주보게 미닫이문과 여닫이문을, 방과 방 사이에는 미세기문을 설치한다. 평상시에는 이 문들은 벽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러나 다 열었을 때 벽은 없

어지고 바닥과 천장만 남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운 계절에 벽은 없어지고 바닥과 천장이라는 수평면만이 남아 사방으로 관통하는 공간의 흐름이 생긴다. 이것은 한국적 생태 현상에 적절한 구조적 특징이다.



(그림1) 한옥의 대표적인 공간흐름

이러한 공간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공간을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행위요, 한편으로는 자연을 집안으로 최대한 수용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림2) 창경궁 기정당 대청

서양 건축이 방의 기능에 관계없이 창 크기를 일정하게 하여 입면에 좌우대칭을 이루려 하지만, 한국의 전통 주택에서는 창호의 설치를 공간의 크기와 기능에 맞게 함으로써 창호의 좌우 비대칭을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 전통 주택의 구조 측면에서 창과 문은 대체로 머름대로 구분되는데, 형태가 같더라도 머름대 위에 설치되면 창이 되고, 머름대가 없으면 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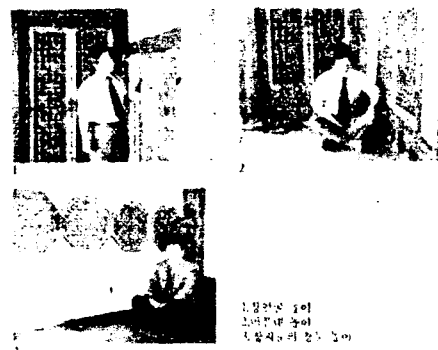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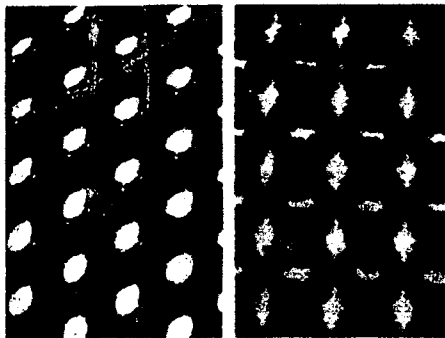
그림3) 인체를 기준한 창설계

머름대는 방풍을 위한 수단으로 방바닥 보다 조금 높게 만들어 방 안의 온기가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머름은 밖에서 안이 직접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시각적 차단 역할을 수행하여 앉은 사람에게 아늑함을 제공한다. 또 높이를 인체를 기준으로 1.8척(약 45cm)이 되게 하여 팔을 걸치고 밖을 내다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뒤퇴로 향한 문들은 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머름대 위에 설치되어 개구부를 좁히고 겨울에 북쪽에서 들어오는 찬풍을 막도록 하였다. 이는 실용이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가치관으로 그 외형적 결과도 나아가 자연의 비대칭성에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벽체에 비대칭의 창호를 내어 맞바람이 불도록 한 것도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용정신의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 주택의 문이나 창틀은 정교하게 만들지 않아 적당한 틈이 있다. 이러한 틈새에 문풍지를 달아 문틈이나 창 틈으로 들어오는 바깥의 찬 기운을 중화시키고 환기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3-2. 디자인적 특징

3-2-1. 형태적 특징

한국 고건축의 창호는 살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빛이 투과됨으로써 기묘묘한 그림들이 연출된다. 또한 사찰의 창호에서는 특히 자연의 형상을 그대로 본 딴 정교한 조각의 살을 배치함으로써 창호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으로써 손색이 없다. 또한 한국문의 또 다른 특징중의 하나로 목재를 정확한 척도로 제재하여 사용하지 않고 흰 재는 흰 대로 자연스럽게 쓰는 경우를 보게된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 전통 건축에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이용할 줄 아는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그림4) 내소사 대웅보전 꽃창살

3-2-2. 소재적 특징

한옥은 대부분이 목구조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창호 역시 대부분 목재로 구성되며 마감재로는 나무마감과 아울러 종이마감을 혼용 사용하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천으로 마감된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나무 마감의 경우 판장문이나 골판문인에서는 널빤지를 붙이는데 결을 곱게 켜낸 널빤지를 좌우 문짝에 각각 사용하되 무늬가 대칭이 되도록 꾸몄다. 거의 모든 창호에 사용된 종이 마감은 풀을 창호지에 직접 발라 문살이 단지 않는 부분에도 풀이 남게 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코팅 효과로서 종이를 더욱 튼튼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종이를 바른 뒤 남는 부분은 문에 딱 맞게 자르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두어 문풍지로 이용하였다. 창호지를 덧문에 바를 경우에는 때가 덜 타고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해 간혹 유지를 바르거나 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얇게 탄 아교물과 백반물을 가볍게 뿌려주는 것인데 창호지가 팽팽해짐과 더불어 더 투명해지고, 치밀해져 방수기능이 더해졌다. 아울러 문과 창에 사용된 한지는 빛, 바람, 그리고 자연음(音)을 여과하여 유

입함으로써 자연과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훌륭한 매질(媒質) 요소이다. 천마감의 경우는 미닫이와 갑장지문 사이에 시창을 다는데 이는 오늘날 여름에 주로 쓰이는 망창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사창은 울이 성근 비단이나 모시를 발라서 바람이 잘 통하고 여름에 벌레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였다.

3-2-3. 감성적 특징

우리 선조의 자연에 대한 친화적 정서와 외경(畏敬)은 자연에 대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 졌으며 자연의 혜택과 영향력 안에서 자연의 순리에 적응하는 자연관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자연관은 우리 민족의 정서적 기질을 형성시킨 자연 풍류 사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전통 건축물의 곳곳에 이러한 풍류적이고 관조적인 배려가 곳곳에서 있어왔다. 창과 문의 배치에서도 또한 예외가 아닌데 예를 들어 사랑채의 대청 옆벽에 창호를 설치한다든지, 개인적인 별업(別業)으로 지칭되는 독락당(獨樂堂)처럼, 사랑채인 독락당과 계곡 사이에 담장의 일부를 뚫고 살창을 통해 흐르는 물의 일부를 볼 수 있게 하여 울 밖의 자연 공간을 끌어 들여 들이 되게 하는 등의 장치가 그것이다. 또한 봉합문과 같이 들쇠에 걸어 올려 막혀있던 공간을 원래 모습으로 통하게 하여 막거나 잘게 쪼개서 흐름, 곧 생명력을 상실한 공간에 다시 생명력을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일부 문의 경우 단순히 드나드는 문으로써만이 아니라 불로장생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드나드는 사람에게 복을 기원하기도 하였는데 주로 사찰이나 궁궐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4. 결론

오늘날 모든 지역과 민족의 문화적 가치가 교차되고 융합되는 신세기를 조망하면서 우리들 사이에는 우리문화를 연구하고 그 고유 가치에서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려는 논의가 분분하다. 생태학적 공간 역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태학적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땅에 생겨나는 새로운 공간들은 우리 지형과 자연환경 특성, 국민들의 생활양식에 맞는 토착화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 공간의 정체성 연구는 전통 공간을 통해서만 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개념을 우리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설정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 생태학적 디자인의 대상은 수없이 많고 접근방법 또한 다차원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그리고 사회적 관점을 고려할 때 생태학과 디자인은 쉽게 융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디자이너들에게는 유사 생태적 경향에 그치지 않는 보다 이상적인 생태적 요소들과의 조화 및 한차원 더 나아가 더 나은 환경을 창조 해 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주어진다.

참고문헌

권영길 **공간디자인 16講** 뉴 패러다임 사회의 공간문화와 인간환경에 대한 쟁점과 대안 월간 인테리어 2000. 1~ 2001. 4연재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 1998 2 열화당**
 류경수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1998 대원사**
 신영훈 **한옥의 조형 1989 대원사**
 특별기고 **생태건축을 위한 철학적 사유 이상건축 2000. 2**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 2 1993 창작과 비평사**
 김봉렬 **한국건축의 재발견 시리즈 1권, 2권, 3권 (주)이상건축 1999.08**